

한탄에서 환상으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배기총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권현성
대림산업 토목관리팀 과장

였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군부대 지역,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말이다. 실시 계획 고시후 착공은 했지만 댐 사업 반대 측에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였고, 소송 제기 움직임까지 있던 터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착공식을 떠들썩한 홍보와 성대한 잔치로 치렀으면 하는 바람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렇게 한탄강 홍수조절댐 공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한탄강 댐의 등장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한탄강댐 건설 예정지의 우안 지역이다. 댐 예정지역 상류 2km지점에는 재인폭포가 위치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원님이 이 마을에 사는 재인(才人) 아내의 미색을 탐하여 이 폭포 절벽에서 재인으로 하여금 광대줄을 타개한 뒤 줄을 끊어 죽게 하고 재인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절개 굳은 재인의 아내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거짓으로 수청을 들며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하였는데, 그 뒤부터 이 마을은 재인의 아내가 원님의 코를 물었다 하여 '코문리'라 불리게 되었고, 차츰 어휘가 변하여 '고문리(古文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1995~1997년 2년 동안 임진강 유역조사를 실시하여 임진강수계

조용한 시작

2007년 2월 28일, 한탄강 홍수조절댐 좌안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군부대 지역 안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조촐하게 안전지원제 행사가 열렸다. 바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착공을 기념하여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대림산업의 담당자들이 모여 댐 건설의 무재해 준공을 기원하기 위한 자리



그림 1. 한탄강홍수조절댐 조감도



그림 2. 파주 문산일대 침수 전경(1996년)

종합 치수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때부터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구상되었다. 임진강유역의 63%는 북한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지역이 침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진강본류에 소규모 조절지(댐)를 건설하여도 부족한 홍수처리능력을 임진강 제1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여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96년과 1998년, 1999년 경기 북부지역에 연이어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128명의 인명피해와 1조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게 되자,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는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연천읍 고문리인 것이다. 혹자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이유가 “한탄강(漢灘江)의 한탄(恨歎)과 고문리(古文里)의 고문(拷問)때문이었다” 라는 웃지 못할 해석도 하곤 한다.

현장으로의 입성

2002년 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한탄강

댐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은 2003년 초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각각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대림산업에서는 특히 실시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및 공사 계획 수립과 사전측량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질조사 용역업체 직원이 관할 관청의 조사를 받고 한 달가량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댐 예정지역의 좌안인 포천시 군부대 지역 안에서 지질조사를 수행하던 중 민간인의 신고로 국유지 불법 점유 및 인허가 미비로 수감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댐 건설과 관련된 고지도 나지 않은 상태였고, 지질조사를 위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뿐이었지만, 업체 직원이 대신 홍역을 치러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출발을 위한 기다림

이처럼 댐 상류 지역인 경기도 연천과 포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지역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 반대를 주장하여 정부와의 의견 대립이 지속된다. 각 지역마다 산재한 주민단체뿐만 아니라 반대 주민들이 결성한 수많은 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환경단체와 지역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은 커져만 갔다. 이에 질세라 댐 건설지역 및 하류지역의 찬성측 주민들도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곤 하였다.

집회와 시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



그림 3. 한탄강 래프팅 시위

게 개최되었다. 댐 건설 예정지인 연천군 지역과 철원군 송일교 광장, 과천 정부청사, 광화문 정부청사, 그리고 심지어는 한탄강에서의 래프팅 시위까지 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우리 직원들은 반대 여론이나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집회에 따라다녔었는데, 그 중 특히 래프팅 시위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하나의 보트에 8~10명이 탑승을 하는데 반대 운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타야 하다 보니, 시공사 직원이라는 신분이 탄로 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로 수많은 반대 집회

와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찰 등 관계자들은 애를 먹어야 했다.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라지고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2003년 말 노무현 前대통령이 사업 재검토를 제안함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관련 당사자(찬·반 주민대표, 정부·환경단체 대표)간의 협상 및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대표가 한 가지 단서조건을 제시하였다. 관련 당사자가 검토하는 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을 개설한 시공사는 사업추진 일시 보류라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기간 동안 현장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4년 말 그에 따라 현장에 상주했던 시공사 직원들 중 연락관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현장에서 잠시 철수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반대측 주민이 시공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실제로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또 논란이 발생했다. 반대측 주민 주장이 시공사 사무실에 연락관 직원 1명만 상주시킨다고 해놓고선 임원급 직원이



그림 4(좌). 한탄강홍수조절댐 찬성집회
그림 5(우). 한탄강홍수조절댐 반대집회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대림산업 한탄강댐현장 000기사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사원급 현장직원은 ‘기사’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시공사의 연락관 직원이 바로 사원급 직원이었었는데, 인사말에 말한 호칭을 ‘이사’로 잘못들은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당시에는 사소한 것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관련 당사자 간에 심각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었고, 그 후 4개월여 만에 우리 직원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산고 끝에 태어난 한탄강홍수조절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이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탄강댐은 한탄강홍수조절댐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된다. 그리고 드디어 2006.12.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고시와 2007.02.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착공하기에 이른다. 2003년 초 현장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한 이후 4년 만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시공사 직원들은 실시설계와 공사 준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친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숙소는 여관 생활로, 식당은 인근 지역 식당을 애용하였고, 지역 축제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열리는 때에는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사부장은 평상시 성당을 다니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성당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동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거침없이 준공까지

한탄강댐은 현재 60%대의 공정율을 보이며 거침없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사 초반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가물막이를 월류하는 물 때문에 고비를 넘겨야 했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의 우수전환방식은 전면가물막이 및 가배수터널 방식으로 되어있다. 상류가물막이댐은 콘크리트댐 형식으로서 설계홍수량은 1년빈도 홍수량을 적용하여 매년 한 번꼴로 월류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



그림 6. 상류가물막이댐 월류 전경

이다. 이 때문에 가설도로 유실 등 피해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본댐 생태통로를 통한 배수 및 사전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공사중 현장에는 업계와 학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체가 견학을 오고 있고, 그 행렬은 준공 이후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댐 하류 친환경 공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한 경기 북부 최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7. 한탄강홍수조절댐 공사 전경(2012년 8월)

국내 최초의 RCD공법(롤러다짐 콘크리트 댐 공법)을 적용한 콘크리트 댐인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높이 83.5m, 길이 690m로서 2.7억 톤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생태통로와 배사관을 통해 물이 항상 흐르는 자연하천이 되지만, 홍수시에는 잠시 물을 가두어 방류량을 조절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의 상습 홍수 피해를 줄여줄 것이다.

갈등을 넘어 신뢰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키워드는 바로 '소통' 과 '신뢰' 이다. 기존 다른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적 사회적 특성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소통의 부재로부터 불신이 쌓이고, 그로부터 갈등이 커진 것이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에 참여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소통을 통하여 신뢰를 얻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여 왔다. 우리 기술자들은 오로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올바른 의

사 결정을 내려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기술자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는 '한여울지역발전 협의회' 라고 하는 공동 협의회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만든 조직으로 사업 준공시까지 운영된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한 사람들, 이러한 성실한 노력들이 담겨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여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기북부라는 지역의 특수성상 관련 치수대책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항상 피해를 보면서도 하늘과 정부만 원망하며 지내온 파주와 연천 등 임진강 수계 피해 주민들의 눈물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소중한 댐으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